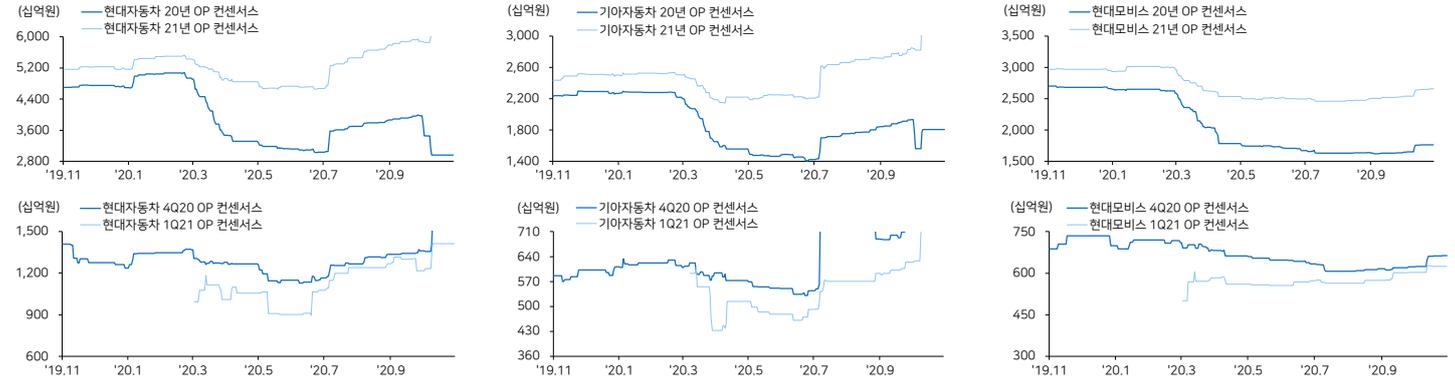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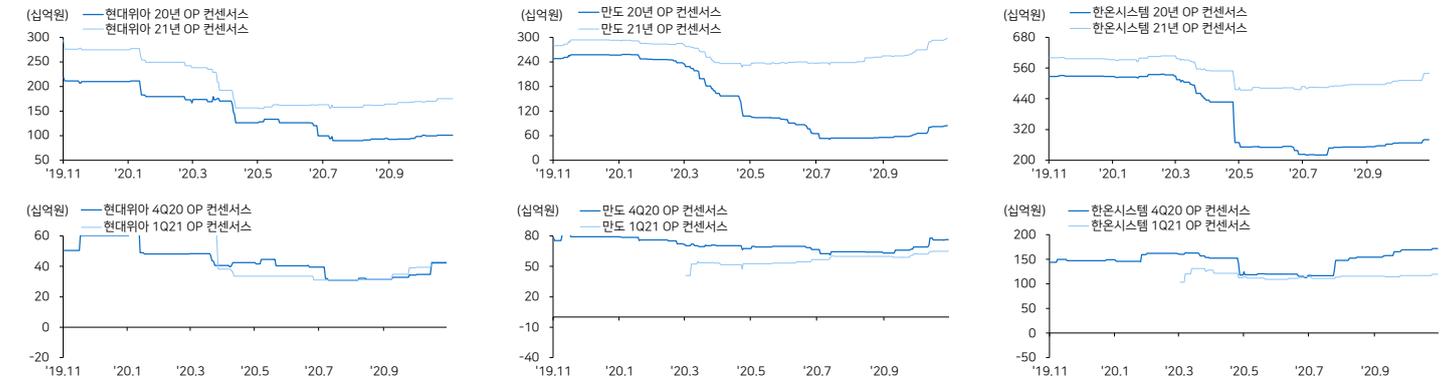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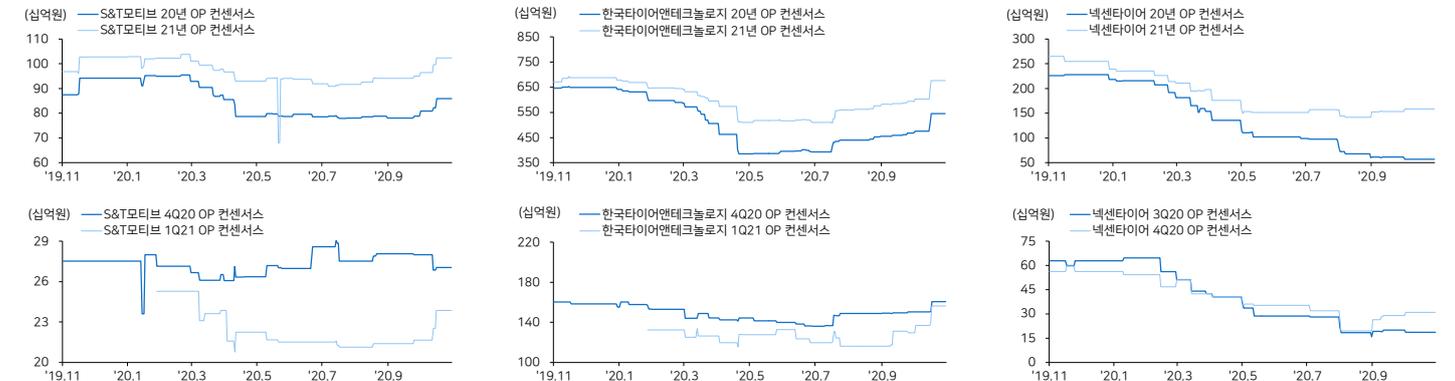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그린수소' 사업 속도낸다...타당성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과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기업이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통한 수소 사회 구현에 나선.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ESS, 수전해 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연계한 그린 수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 <https://bit.ly/3nDdGjI>

### 현대차, '뉴딜펀드'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사격 (뉴스토마토)

현대자동차가 국민참여의 정책형 펀드인 '뉴딜펀드'의 지원 사격에 나선. 현대차의 발표 참여로 내년에 출시하는 뉴딜펀드에 현대차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https://bit.ly/3kiyvcx>

### 스스로 빗방울 떨어내는 유리...현대차, 스마트업 혁신 기술 전시 (동아일보)

현대차그룹은 이와 같은 신기술들을 실증 시연한 '2020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를 16, 17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개최.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는 현대차그룹이 외부 스타트업과의 기술협력과를 위해 마련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https://bit.ly/2KHzjBa>

### 기아차 노조, 결국 부분파업 돌입...9년 연속 파업 (조선비즈)

한국GM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24일부터 결국 부분파업에 돌입. 이번 파업으로 기아차 노조는 무분규 합의를 이뤄냈던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22364>

### 코로나 뚫은 쓰넷' 기아차, 인도 소름 연내 300개 돌파 (더그루)

기아자동차가 인도에서 셀토스와 쓰넷의 연이은 흥행으로 고객 집점을 확대.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인도 소름은 올해 안에 300개를 돌파. 현재 기아차는 인도 내 165개 도시에 265개 소름을 운영하고 있음. <https://bit.ly/3pJvYBM>

### 현대·기아차 투자 어라이벌, 스펙 합의로 나스닥 상장 예정 (e대안경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투자한 영국의 상용용 전기차 업체인 어라이벌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을 통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이번 거래에서 어라이벌의 가치는 54억달러로 평가됐다 전해짐. <https://bit.ly/332PwHv>

### 현대·기아차, 美 '세타엔진 화재'로 8500억 보상하나 (더드라이브)

현대·기아차의 세타 엔진 화재 집단소송 합의안이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임.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논란이 된 '세타2 GDI 엔진' 차량 화재에 대한 소비자 보상이 이번 달 최종 승인을 거침. <https://bit.ly/3nGnmTg>

### "자동차는 사치재 아냐"...윤영석,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 추진 (뉴스원)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졌던 시절에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 그러나 40년이 훌쩍 흐른 현재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https://bit.ly/3plDjB2>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